

가족이 하나 되는 길  
우리정 가족법회를 소개합니다

# 특화된 가족법회 소통과 화합 한 목소리 '화음'

정각사

## 눈높이 맞춰 부처님 품으로 정각사 계층별 일요일법회 '인기'

“번뇌에 허덕이는 뇌가 진리를 생각하는 뇌로 바뀝니다. 가족들과 손잡고 정기법회에 참여해보세요.”

조계종 해인사 포교원인 정각사는 매주 일요일법회(가족·어린이·청소년)를 열고 있다. 주거밀집지역인 산본 신도시 중심상가에 사찰이 위치해 인근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일요일가족법회를 열어 △천수다라니 21편 독송 △사시 예불축원 △불교문화·고리강좌를 진행한다.

엄마·아빠를 따라 온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가족법회에 참여하는 동안 어린이 법회인 '연꽃 어린이회'에 참석한다. 지도법사 담영스님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밌는 법문을 들려주며 율동, 레크레이션, 노래, 구연동화,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하고 월 1~2회씩 계절별 야외활동 프로그램(수영장, 눈썰매장 가기)을 마련한다.

오후 1시부터는 중·고생 법회를 열어 △공부 잘하는 법 △정신집중 하는 법 △문화재 애호 활동 △공해추방운동 △자원봉사 활동 등 청소년들도 하여금 불심을 키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10년째 결식아동을 위한 장학사업 및 지역 사회 복지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정각사는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두 딸과 매주 일요일법회에 참여한지 4년째에 접어들었다는 정연희(49·군포시) 보살은 “회사동료가 읽고 있던 경전을 보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돼 집 근처 사찰을 찾게 됐다”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불교를 알게 돼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불교를 알면 알수록



정각사는 매주 일요일 가족법회를 열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일요일가족법회(위), 연꽃 어린이회 어린이들이 반(반 아시경)을 독송하고 있다.



특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와 지혜를 배울 수 있어서 우리 딸들이 배웠으면 하는 바람에 절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매일 <반아시경>을 사경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한다는 박이름(20·아영(18)양은 “엄마가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우리를 더 믿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마다 많은 조언을 줘 참 좋다”고 말했다.

어린이법회는 20여 명의 어린이들이 용기 증기 모여앉아 예불문, <반아시경> 독송을 하고 찬불가를 배워 따라 부른다. 김지혜(13·도장초) 어린이는 “정각사에 있는 공부방에서 공부하다가 어린이법회도 참여하게 됐다. 스님 법문도 듣고 종이접기, 만들기도 배우고 캠프도 가서 재밌고 좋다”고 말했다.

주지 정엄 스님은 “한 심리학자가 ‘절에 가려고 준비하는 마음만 먹어도 뇌 속에서 명상 상태를 반영하는 안정적인 뇌파인 세타 파가 나온다’고 했다”며 “항상 설레이는 마음이 중요한데 주말에 집에서 쉬는 것도 좋지만 매주 정기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법회에 나오려는 마음가지가 정신건강에도 좋고 가족들끼리도 화합하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031)398-8001

현대사회는 산업화·정보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로 가족제도 자체가 변화했다. 특히 핵가족제도의 보편화는 가족 구성원은 물론 세대 간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는 3·4인 가구가 전체의 73%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2대가족, 즉 핵가족이 대세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됐다.

맞벌이 등으로 생활고에 찌든 대부분의 도시 거주자들은 부모는 생계를 꾸리느라, 자식은 학업에 열중하느라 서로 대화할 시간조차 없다.

최근 조계종 포교원은 ‘2009년 수도권사찰 포교역량조사 세미나’를 열어 가족 공동의 발전과 기도가 일상화 되도록 하는 신행지도와 가족법회에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요일 또는 특정일에 부부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법회를 운영해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신심을 배가시키는 사찰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군포 정각사와 서울 법안정사, 금정사의 가족법회 성공사례를 통해 핵가족 시대의 바람직한 포교전략을 모색해보자. 이나은 기자

법안정사

## 부부법회 17년 신행·삶 한길로 법안 스님 “나와 가정 창조하는 행복한 주인 되길”

서울 목동 신시가지에 위치한 법안정사는 한·불 수교 100주년을 기념해 설치된 파리공원을 앞에 두고 있다.

도심 사찰이라는 특성에 맞게 법안정사에는 다양한 세대의 부부불자들이 많다. 이들은 1993년 부부불자회를 만들어 현재까지 17년 동안 부부법회, 교화사업, 친목도모, 정법구현, 봉사활동, 산행법회 등 활발한 운영으로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주로 40~50대의 부부들로 구성된 불자회 인원은 600여 명이며 최근에는 30대의 젊은 부부들의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다.

부부불자회(회장 문정호·김상엽 부부)는 매월 첫째 토요일 저녁에 법회를 열고 다양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 모임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신행활동을 위해 가정법회와 함께 교육·봉사·상조·홍보분과 등이 목동지역 10개 지부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정기적으로 가정법회를 열고 신행·



법안정사 부부불자회는 목동지역에서 10개 지부로 나뉘어 봉사활동, 산행법회, 산사체험 등 다양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찰상지순례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각자 활동 가능한 시간에 서울지역 복지관, 노인요양원에서 급식, 목욕봉사에 동참중이다.

지도법사인 회주 효경 스님은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 부부들과 함께 도반이 되는 법안정사 부부불자회에 동참해 성스러운 인연으로 참된 진리를 배우고 수행 정진해 ‘자신과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는 행복한 주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2646-4975

금정사

## 모성 닮은 포교중심도량 역할해 보리방과후교실·장학금 수여·가족법회 운영

서울 서대문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금정사는 15년간 학인스님과 어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오며 따스한 어머니같은 포교중심도량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보리방과후교실’ 공부방을 운영하는 금정사는 연 2회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이들을 독려하고 가족법회를 열어 온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사찰은 매주 일요일 오전에는 가족법회와 어린이 법회를,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에는 대학·청년법회를 열고 있다.

또한 사찰은 매월 둘째주 일요일에 회암장학법회를 열어 중앙승가대학교수인 본각 스



금정사는 매월 둘째 주 일요일 가족동반법회인 '회암장학법회'를 연다.

님의 <회암경> 강의와 생활법문을 들려주고, 법회가 끝난 후에는 신도들이 불서를 선정해 독서토론회를 여는 등 신심과 교양을 함께 배

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금정사 회주 본각 스님은 “가족 모두가 법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회시간이 짧은 길든 즐거워야 하는데 내용도 모르는 염불을 계속 외워야 하는 것이 가족법회의 참여를 꺼리게 되는 요인”이라며 “불교는 환경적·수행적인 면에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금정사는 불교를 처음 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법회를 할 때에는 예불시간을 길게 하지 않고, 점심공양은 온가족이 함께 하기에 잔치상처럼 푸짐하게, 어린이들은 어린이법회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한다”며 “일주일에 한번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대화를 하는 계기가 되고 부처님말씀도 배워 가족과 가까워지는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02)395-0042

###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

대한불교조계종

#### 천자암

조실활안  
주지대경

문보덕화

신도회장 여옥란

사부대중일동

전남 순천시 송광면 이음상리 산1번지  
TEL 061)754-3708  
H·P 010-3137-3785  
FAX 061)754-4347

대한불교조계종

#### 황룡사

황룡사 불교대학  
울산 제일 기도·포교·자비도량

주지 황산  
불교대학 운영위원회

불교동문회 일동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63-13  
TEL 052)211-1949

대한불교조계종

#### 아차산영화사

부설 영화유치원

회주 송월주 스님 외  
사부대중 일동

서울 광진구 구의동 9번지  
전화 02)444-4321, 7215

한국불교태고종

#### 봉원사

“경인년 새해 항상 여여하시길  
삼보전에 기원합니다”

대중일동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전화 02)392-3007~8

#### 옥천범음대학

유네스코 세계 무형 문화유산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보존회  
(사) 한국불교 영산재 보존회

회장 마일운  
회원일동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전화 02)392-3007~8